

인간과 하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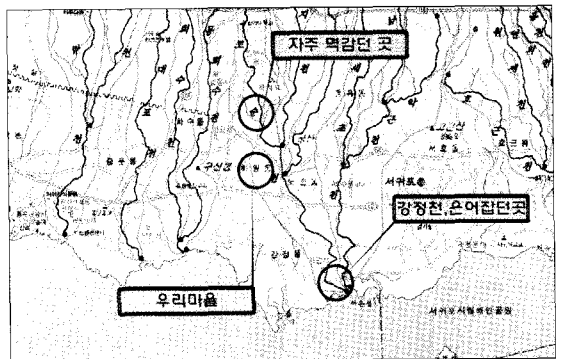
River & Culture



김명수 | (주)이산수자원부 대리
(life999@hanmail.net)

우리 마을 하천이야기 제주 서귀포

나에게 하천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는 '내장'이란 말이다. '내장'은 내 고향 제주도 사투리로서 표준말로 하면 냇가 정도 되겠다. 나에게 내장은 어린 시절 여름 최고의 놀이터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이던가 아버지 갑장(동갑내기 친구의 한자어, 제주에서 많이 쓰임) 모임으로 7~8가족이 계곡으로 놀러갔다 - 그전에는 여름야유회를 거의 해수욕장으로 갔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육개(표준어: 튜브)를 타고 파도타기 같은 걸 하며 놀았고 수영을 거의 하지 못했다. - 비가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던 때라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생겨있었다. 제주 하천은 거의 건천이라 이렇게 비온뒤 생긴 웅덩이에는 물이 고여 있었는데 5~8살 두린아이(어린이)들이 물놀이



〈그림 1〉 우리마을 하천

를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돌덩이들로 깊은 곳을 채워주시고 는 도세기(돼지)를 잡아 술을 드셨다. 거기서 본능적으로 개

해엄을 배웠던 것 같다. 그 전에 물놀이할 때는 계속 얼굴이 물속에 잠기더니 숨을 쉬고 싶은 마음에 손을 부지런히 놀리는데 몇 초간 얼굴이 물에 뜨는 게 아닌가. 그때 당시 희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제주도 하천은 대부분 건천이라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다. 단지 비가 오면 동네아이들끼리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천 중간 중간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을 뿐이다. 그 중 제일 자주 가던 웅덩이가 뚝도구리(뚝지 밭그릇)다. 비온뒤 초반에는 물이 많고 물도 맑아 참 물놀이하기 좋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이 줄어들면서 탁해지고 녹색이끼가 끼서 멀리서 보면 물이 불쾌한 녹색으로 보인다. 그런 물도 귀해서 우리들은 좋다고 열심히 먹 감으려 다녔었다.

8월 어느 날 오후, 햇살을 따갑게 느끼면서 신나게 떡을 감고 있는데 '우르릉' 천둥소리 비슷하게 조그만 울림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닌가. 시끄럽게 물싸움하는 녀석들은 정신없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고, 잠시 쉬려고 높은 바위위에서 일광욕을 하는 나를 포함한 일부는 그 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한 녀석이 "야 머햐나, 혼저 올라오라게! 야 큰물 내려왓쨌, 제기제기! (애들아 뭐하니 빨리 올라와! 위에서 급류가 내려온다! 빨리빨리!)"라고 상류를 쳐다보면 소리쳤다. 그 친구의 시선을 따라 상류를 올려다보니 검은 흙탕물이 거대한 해일처럼 우리를 향해 덮쳐오고 있었다. 겁이 확 났다. 우리들은 정신없이 흙탕물을 피하기 위해 위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류에서 물놀이하던 친구들이 조금만 지체해도 휩쓸릴 판이었지만 진짜 간발의 차로 급류에 휩쓸린 사람 없이 가까스로 높은 바위로 올라올 수 있었고 급류가 완전히 지난 다음에야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아주 엄청난 급류는 아니었지만 - 어른 입장에서는 돌부리라도 잡고 견딜만한 수준이었지만 - 그 당시 초등학교생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목숨을 잃을 뻔했던 엄청난 사건이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리들은 전부 팬티차림 또는 다 발가벗은 상태였고, 높은 곳에 벗어둔 옷들은 멀쩡했지만 웅덩이 옆에 벗어둔 옷들은 급류에 휩쓸려 떠

내려 가버렸다. 그래서 옷이 없는 아이들과 상하의 한쪽씩 나눠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란 가관이 아니었다. 어떤 녀석은 하의만 입고 상의는 누드, 어떤 녀석은 밑에 팬티만 입고 상의만 입은 녀석 등등, 정말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일생 일대 희대의 코메디를 연출하며 집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다.

이런 현상은 물에서는 가히 아주 급경사 하천이 아닌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것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는 일상사에 불과하다. 한라산이 워낙 고지대라 일기변화가 잦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하천하류나 해안가에는 날씨가 쾌청하지만 한라산 중턱 이상으로는 비가 오는 경우가 다반사라 하류부 하천에서는 물놀이를 하고 있지만 상류부에서는 급작스런 일기변화에 따른 호우로 급경사지 하천을 타고 유수가 물기둥처럼 일어나 하류부로 내달려 오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라산에는 숨골이 많아 하천유수가 숨골로 스며들어 하천바닥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하천 중하류부로 갑자기 솟아 나와 흐르곤 하여 제주도 하천에서 먹 감은 일

은 일종의 모험이면서 도전인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이런 것이 재미였지만 내가 애를 낳아 그 애가 초등학교로 자라서 고향집에 놀러갔을 때에는 그냥 수영장에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아버지 세대의 기가막힌 추억을 공유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지만, 역사사고 문제뿐만이 아니라 물뱀 등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영을 하거나 개구리를 잡다보면 물뱀이 수면위로 아름다운 물결을 일으키며 횡단한다. 냇가 웅덩이에서 수영을 할 땐 물뱀이 덜 보인다. 대신 개구리 서식지 주위에 물뱀이 많이 보인다.

제주도에도 아주 작게 논농사를 짓는다. 한라산 지하수가 산기슭에서 용천하여 하천을 이루어 바다로 흘러가는 경우에 그 인근에 논농사를 짓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곳에 개구리가 많이 산다. 우리들이 개구리를 주로 잡는 곳은 눈에 물을 댄 후, 그 물이 흘러나와 조그만 웅덩이에 고였다가 다시 흘러 내려가는 곳에서 행해졌으며 어렸을 때는 개구리 잡기는 동네 형들의 몫이었고 우리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올챙이를 잡았다. 그 올챙이를 키운다고 소주병을 주워 다가 물을 담고 집에서 기른다고 잡아와서 파리를 잡아 수면위로 떨어트려주면 올챙이들이 입을 빠끔빠끔 벌려 먹었다. 이 녀석들이 수면위로 자주 올라오는데 숨을 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수면위의 플랑크톤 등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암튼 자주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 못내 못마땅하였다. 올챙이들은 배가 고프면 올챙이끼리도 잡아먹는지 병에 들어있는 올챙이들이 분명히 온전했는데 며칠이 지나고 보면 꼬리 부분이 잘려나가거나 다친 녀석들이 생겼다.

하천가는 주변에 올챙이를 잡으러 가면 자연스럽게 개구리 성장과정이 학습이 됐다. 처음엔 개구리 알들이 정체수역대에 모여 부화를 준비하고 부화 후 올챙이들이 잔잔한 물살을 이기고 열심히 돌아다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뒷다리가 생긴 올챙이들이 보이고 나중에 앞다리까지 나와서 손톱만한 새끼 개구리가 되는 것을 보아가며 자연스럽게 생물과목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들도 자연스럽게 사냥꾼으로 성장하여 올챙

이 잡기에 시들해져 동네 형들처럼 개구리 잡기에 나선다. 개구리를 잡으러 갈 때는 50원짜리 도루코 칼과 20원짜리 성냥을 준비하고 나선다. 그물은 필요 없다. 동네 형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맨손으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손으로 확 움켜쥘다. 노칠 경우가 더 많지만 잡혔을 때 도망치려고 바둥거리리는 손맛이 제법이다. 개구리를 잡으면 칼로 뒷다리만 잘라서 상체를 놓아준다. 조금 불쌍하기도 하고 징그럽지만 그당시에는 개구리 뒷다리를 자르면 다시 뒷다리가 자라나는 줄 알고 구이용으로 뒷다리만 자르고 놓아주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개구리 뒷다리가기가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다. 오히려 개구리를 잡고 집에 가져와서 파리 먹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 더 재미있었다. 순식간에 허가 나와 파리를 입으로 가져간다. 너무 빨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신기했다.



사진 출처: enyber.com(무산백과사전)

개구리 잡기 놀이도 우리가 더 성장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민물낙시로 옮겨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도 하천은 거의 가건천이라고 알고들 있지만 제주도 하천 중에서도 항상 흐

르는 하천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상류부로는 숨골로 하천수가 스며들어 하천수가 흐르지 않지만 하천중간에 지하수가 용천하여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이 된 것이다. 이런 하천 중에 강정천이 있으며 강정천에는 식수용 댐이 있고 그 하류에는 특히 은어가 많다. 뜨거운 태양 아래 반짝이는



〈그림 2〉 강정천 은어 -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천 하류에서 바다에서 지란 은어들이 힘차게 뛰어 오르며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강정천올림은어축제 가 열린다. (출처: 연합뉴스, 2004. 4. 21)



〈그림 3〉 강정천 유원지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cyber.jeju.go.kr)

수면위로 더 반짝이는 은어가 뛰어오르면 내 눈 한가득 별을 머금곤 했다. 은어는 낚시로 낚아야 제 맛이다. 미끼도 달지 않고 물결 따라 낚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겐 고난이도의 기술이었다. 우리는 주로 낚시 바늘에 밥알 하나를 끼워서 모앵이(송사리) 낚시를 자주 했다. 조그만 대나무로 낚싯대를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그냥 맨손으로 줄낚시를 하기도 했다. 물이 워낙 맑아 밥알 주위로 모여드는 모앵이를 보면서 낚는 맛은 보통 저수지나 바다에서 낚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색다른 재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여름철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서리이다. 냇가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수박, 복숭아, 미강(꿀), 심지어 무도 서리를 해서 먹곤 했다. 비록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릴 적 서리는 우리에게 스틸과 묘한 쾌감이 교차하는 모험이었다. 수박은 서리를 해서 냇가에 풍덩 던져놓고 먹 감다가 배고프면 깨뜨려서 먹고, 아직 의지도 않은 꿀을 ‘아이 시영 못먹키여(아이 시어서 못 먹겠다)’ 하면서 잘도 따다 먹었다. 무는 잘못 뽑으면 아주 쓴맛을 봐야 한다. 잘 골라서 먹어야 달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법이다. 덕분에 지금도 아내와 시장을 볼 때면 무를 비롯한 과일, 노물(채소) 고르기는 내 담당이다. 과일은 확실히 시골출신들이 잘 고르는 것 같다. 다시 돌아가서, 서리가 재미있었던 것은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복숭아 서리를 하다 들리고 말았다.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죽어라 뛰어 잡히는 않았지만 어차피 동네가 좁아 대충 봐도 뉘 집 자식인지 아닌지 저녁에 전화가 와서 부모님께서 사과와 변상을 약속하는 통화를 하시기가 일쑤고 대신에 슬리퍼를 잃어먹은 죄로 벌을 서는 게 다반사였다.

더욱이 불장난 하다 집에 불을 낼 뻔도 했었다. 동생과 동생친구와 그 누나,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에서 우리집 마당에서 놀다가 동생이 종이에 불을 피웠는데 다들 신기하게 구경하다가 종이가 타 들어가면 손이 뜨거운 동생이 종이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불씨는 점점 커져서 쇠(소) 먹일 풀(풀)을 버낱가리처럼 쌓아 둔 곳까지 불이 옮겨 붙었고 낮잠을 주무시고 있던 할아버지께서 일어나셔서 ‘이놈의 자식들! 불이야!

불이야!' 라고 소리치셨다. 우리는 정신없이 도망을 쳤고 1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 초가지붕 일부와 남가리 전부를 태우고 불은 꺼져있었다.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는 조용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 주셨다. 지나보면 부모님께서는 큰일은 감싸주셨고, 조그만 일에는 가차 없이 회초리를 들었었던 것 같다. 반찬 투정을 하거나 방학숙제를 안했을 때 맨발에 팬티 차림으로 대문밖에 내쫓으셨는데 너무 창피하고 눈물이 났던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한번은 쇠 출 먹이러 데리고 나갔다가 친구들과 하천에서 너무 먹을 감고 싶어서 나무에 묶어놓고 신나게 물장난 치며 논 후 소를 찾으러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 소는 온 데 간 데 없고 이곳저곳 싸놓은 똥만 그 흔적만 남아 있었다. 겁이 덜컥 났다. 그 근방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는 찾을 수가 없었다.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외양간에 그 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나 기쁘고 신나던지..... 그 녀석이 집에 오는 길을 알고 스스로 찾아왔구나 싶어 무척 기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중에 자초지종을 들어봤더니 한 동네 아저씨 역시 소 출 먹이러 갔다가 소 한 마리가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면서 풀을 뜯고 있던란다. 아마 내가 묶어 놓은 줄이 풀려서 소가 돌아다니며 풀을 뜯고 있었던 듯. 마을이 작으니 이웃집 순

가락 개수도 아는 마당에 누구네 소인지 모를 리가 있으랴. 그 아저씨가 우리집에 소를 끌고 와주셨던 것이었다. 그 이후로 소 출 먹이러 갈 때는 절대 친구들이랑 먹을 감지 않았다.

이렇듯 어린 시절 하천은 나에게 즐거운 추억과 행복을 주었다. 2년 전에 다시금 강정천에 놀러 갔었다. 강정천내 나무그늘이 햇살을 가려주는 곳에 평상을 펼쳐놓고 닭백숙과 함께 소주한 잔을 걸치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함이 밀려왔다. 게다가 수면위로 피어오르는 물안개를 보니 술맛은 더욱더 깊어만 지고 나는 신선의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중에 제주도에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꼭 강정천을 경험해 보시라. 나는 감히 제주도 하천의 신비함과 풍류를 만끽할 수 있으리라 호언장담한다. 또한 한군데 더 추천하자면 서귀포자연휴양림이다. 계곡과 삼림욕을 동시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어른들은 삼림욕을 즐기다 못해 백숙에 소주한 잔의 미각체험까지 할 수 있고, 아이들은 옆의 계곡물놀이나 미니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다. 내가 제주도 사립이라 제주도 광고만 하는 것 같은데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강정천유원지와 서귀포자연휴양림은 너무 좋아 꼭 한번 가보시라고 추천하고 싶다. 🌑